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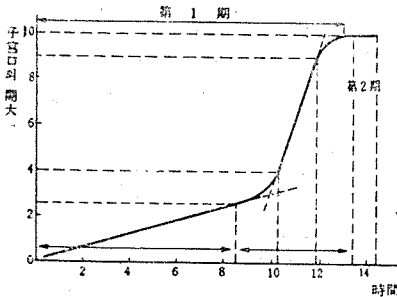
주부교실 —▶



分娩의 경과 <上>

분만 제1기

진통이 시작되고 자궁의 출구가 열릴 때까지(직경이 약 10센치메타)를 분만 제1기라 말한다. 초산부에 있어선 평균 12시간 경산부는 5시간정도 걸린다. 진통이라 함은 주기적인 자궁수축인데 그 주기가 15분, 10분, 5분으로 점점 짧아지며 또는 역으로 수축하는 시간이 20초, 30초, 50초, 길어지는양 변화하는 일이 많다. 배로는 최초부터 5분 간



격으로 수축되는 일도 있으며 배로는 자궁의 출구가 진통도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4센치 열린 사람도 있고 산통을 호소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이 있다. 이와같이 진통의 시작과 경과는 개인차가 큰 것이다. 임신말기에 볼 수 있는 복부긴장은 보통때와 다른 것을 자신이 대개 알 수 있으며 배를 만져보면 딱딱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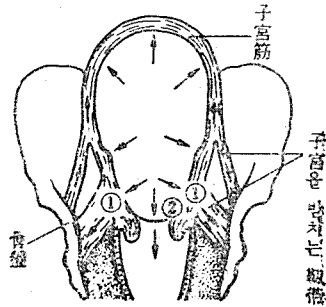
만져지므로 몇분 간격으로 딱딱해지는가를 알아보고 규칙적으로 긴장되면 임원하는 것이 좋다.

자궁구의 열리는 속도는 5~6센치열릴 때까지는 천천히 되고 그후에 급속이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참조)

이와같이 자궁구의 확대됨과 같이 태아의 머리는 조금씩 회전하면서 골반으로 내려온다. 이 진도를 좌우하는 것은

子宮口 開大의 순서

자궁근의 수축에 의해 (1) 외살문 쪽으로 땅기면서 開大된다. (2) 자궁의 內圧이 높아지고, 이력으로 자궁구가 열린다.



진통의 강도 태아의 크기, 골반 크기와의 관계, 자궁구의 굳기, 태아의 머리회전 상태, 파수의 유무등이다. (그림 참조)

분만 제 1기는 개구기라고도 하며 자궁구를 개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자궁구의 개폐는 자궁내압의 상승과 자궁체부의 수축으로 자궁구를 잠어다 니게 됨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시기는 자궁의 수축력이 주역이 될

으로 별도로 힘을 줄 필요는 없다. 전신의 힘을 빼고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좋다. 정신에 방성 무통분만에 쓰이는 보조동작은 분만제 1기의 경과를 부드럽게 하는데 좋다. 복식호흡 하복부의 운상맛사지, 요부의 압박, 장골내측의 압박등이다.

그의 심스체위 등은 전신의 힘을 빼는데 적당한 체위라고 본다.

〈이 영 속〉

